광양항에 초대형 물류센터 들어선다

글로벌 소싱 전담… 건평 2만평 규모 내년 착공

삼성 홈플러스, 한국컨 부두공단과 MOU 체결

광양항 물류단지 내에 글로벌 소싱을 전담할 초대형 물류센터가 건립된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테스코 본사에서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과 광양항 물류 단지 내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MOU(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 광양항 물류센터 건립에 본격 나선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광양항 1차 배후단지가 완공되는 2008년 6월 착공해 2010년까지 5만평 부지에 건평 2만여평 규모의 글로벌 소싱 전담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삼성테스코는 이 물류단지 조성에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차세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 광양항은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항만 활성화를 위해 배후단지를 2011년까지 총 112만평 규모로 개발중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제휴로 안정적인 국제 물류망을 확보함으로써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만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홈플러스는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제품 발주에서부터 매장 진열까지 이르는 리드 타임(Lead Time)이 3분의 1 이상 단축돼 중국 직소싱 상품을 평균 2-3일내에 매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또 현재 중국 외에 동남아(베트남, 방글라데시), 유럽(영국 등)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소싱지역의 다변화에 맞춰 중장기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와함께 광양항 물류센터를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전세계 테스코 매장으로 수출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물류 총괄을 맡고 있는 SCM 운영본부장 윤현기 상무는 "물류센터 완공 후에도 상품 통관 절차와 내륙운송 프로세스 최적화, 원스톱 서비스의 체계화, 매장 직배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광양항 물류센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류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유명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소싱 전담 물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제조업체들이 해외 진출 때 값이 싼 현지의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결국 부품을 세계 각처에서 싸고 신속하게 조달함으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품조달의 현지화와 동시에 국제화로 해석할 수 있다.

광양제철 고강도 車 강판 공급 확대

연산 80만t 규모 POL 설비 준공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내장재용 고강도 자동차강판으로 사용되는 산세강판(PO) 공급을 크게 늘린다.

포스코는 "연산 80만톤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3번째 POL(Pickling & Oiling Line) 설비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비 준공으로 포스코는 기존 1, 2호 설비를 포함해 총 240만t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자동차용으로 연간 50만t 추가 공급하게 돼 자동차 생산 증가와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발전에 따른 산세강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3호 POL 설비는 기존 설비에서 생산가능한 두께 5-6mm보다 두꺼운 8mm까지 생산이 가능해 수주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열연강판 표면에 부착된 산화철과 불순물을 제거한 후 오일을 도포한 산세강판은 열연제품과 재질면에서는 동일하나 표면이 매끄럽고 가공성, 용접성, 내식성이 뛰어나 자동차 내판 및 구조용, 가전부품, 컴프레스 커버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3호 POL은 건설초기부터 공장 합리화시 철거된 설비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자력엔지니어링 및 국산화 기술 활용 등을 적용, 동일 규모의 설비확장에 필요한 총 투자비 1천300억원의 50% 수준인 700억원으로 투자비를 절약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올 설 차례상 비용 22만 6,100원

과일 작황부진 여파 지난해 보다 10% ↑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청과류의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1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광주신세계는 올해 설 표준 차례상 비용은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최고 10% 오른 22만6천100원으로 추정했다.

청과류의 경우 사과 3개에 1만5천원 등 5만5천원, 농산물은 대파 1단에 2천400원 등 4만2천900원, 수산물은 참조기 5마리에 2만8천원 등 8만4천100원, 축산물은 한우양지국거리 100g에 1만3천500원 등 4만4천100원이 들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청과류는 작황부진 등으로 20%, 축산물은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검출파동으로 국내 판매가 늦어지면서 10% 오를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차례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5일 대주건설 '피오레 하우징갤러리' 개관 전야제에 참석한 김포천 대주그룹 고문, 이영준 대주건설 대표, 전주언 서구청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기계 규격부품 사용 여부 실태 조사

미규격 부품 사용 업체에 생산 지원금 심사서 감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농기계업체의 규격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융자심사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달 4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기술표준원은 농업용 트랙터와 경운기 등에 쓰이는 47개 부품의 통일·단순화 명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부품 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품목에 대해 부품의 치수나 형상 등 규격을 통일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산자부 관계자는 "통일·단순화 명령이 주로 농기계 부품에 적용되는 이유는 농촌지역 특성상 제조업체별로 각각 다른 부품을 제조, 공급하게 되면 부품을 제 때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성장 가능성 큰 中企 보증지원 확대"

이진서 신임 신보기금 호남본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신용보증기금 이진서(53) 호남영업본부장은 "호남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10.1%인데 관내 기업의 보증잔액 점유율은 8.4%에 불과하다"며 "지역기업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호남지역에 2조5천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으로 이중 40%를 수출기업·지역특화산업·유망서비스업 등 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출신인 이 본부장은 광주일고와 전남대를 졸업한후 1980년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해 본점 업무지원부장과 광주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주 '피오레 하우징갤러리' 오늘 개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900평 규모 상설주택전시관

풍암 5차 '피오레' 분양 시작… 선진 주거환경 조성

대주건설은 상설주택전시관인 '피오레 하우징갤러리' 문을 열고 자사 브랜드인 '피오레' 홍보 및 지역 내 선진 주거환경 조성에 본격 나선다.

대주건설은 25일 대주그룹 임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위치한 하우징갤러리에서 개관 전야제를 개최했다.

이날 전야제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오픈축제를 비롯, 송대관·강성범(사회) 등 연예인 공연, 사물놀이 등이 열려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또 오후 5시에는 김포천 대주그룹고문, 이영준 대주건설 대표,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전주언 서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 전야제 행사를 가졌다.

하우징갤러리는 지상 4층, 900여평 규모로 26일 오전 10시 개관된다. 개관과 함께 오후 2시에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들어서는 풍암5차 '피오레' 아파트(277세대)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대주건설이 광주지역에 처음으로 개관한 하우징갤러리는 기존 모델하우스와 달리 일정 장소에 고정된 상설 전시관으로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각종 시설을 갖춘 신개념의 주택전시관이다. 이 하우징갤러리는 향후 광주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주택전시관으로 활용된다.

대주건설 이영준 대표는 "지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주거문화를 선사함으로써 시민들 모두의 커뮤니티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협 중앙회장에 이종구씨 선출

수협 중앙회장에 이종구(55·사진) 전 진해시 수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수협중앙회는 25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수협중앙회장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 95명 전원이 투표해 이 가운데 45표를 얻은 이 전 조합장이 신임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1951년 경남 진해시의 어촌마을에서 태어나 어촌계장 등을 거쳐 진해시 수협 조합장을 5차례 연임했다.

3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차석 홍(64) 전 수협중앙회장은 19표를, 박학순(61) 전 경기남부수협 조합장은 31표를 각각 얻었다.

이 신임회장은 이 날 당선 소감에서 "지금까지 뱃놈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뱃놈으로 살 것"이라며 "뱃놈은 강하지만, 강인한 의지로 험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만큼 조합원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